

# 광주시, 외래진료 사례관리 58억원 절감

### 과다 이용 고위험군 1221명 적정 진료 유도

### 의료급여 관리사가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

광주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외래진료를 과다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58억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의료급여대상자 6만3430명 중 질병에 비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과다 이용하는 고위험군 1221명을 대상으로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들의 가정방문 과 전화상담 등 맞춤형 사례관리로 적정 진료를 받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2018년 130만6000여일에 달하던 해당 고위험군 대상자들의 연간 급여일수가 2019년에는 120만8000여일로 9만8000여일 줄었다.

이로 인해 연간 178억8400만원에 달하던 의료급여 비용도 2019년에는 121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어 1인당 평균 연간 의료급여 비용이 1465만원에서 991만원으로 474만원(32.3%) 감소했다.

실례로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갑비배 곱질과 만성질환 등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동일 성분 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등 '의료쇼핑' 을 해 2018년 의료급여 사용액이 연간 8100만원에 달했다.

이에 해당 자치구는 A씨를 고위험군 대상자로 분류해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동일성분 약품 중복투약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의료급여 비용이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원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급여 관리사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약

물과다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에서는 25명의 시·구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신규·장기 임원자나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해 중복처방, 약물과다, 의료쇼핑 등의 행위를 막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류마시 시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동구, 학교에서 통기타 배워요

광주 동구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0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지원 사업(이하 '통기타 행복교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기타 행복교실'은 초등학교에 악기(통기타)와 전문강사를 지원해 학내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1악기' 사업의 일환이다. 동구는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마치고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선발된 15개 학급은 모두 10주에 걸쳐 교과(음악)시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통기타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을 마친 후에는 아이들의 음악적 성장을 공감할 수 있는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

광주 서구가 사람중심 서구, 건강복지 서구, 문화서구 건설을 위해 공동체 일대에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총 6,660㎡ 규모로 들어선다.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서구 제2의 노인복지관과 공동도서관 시설인 복지동과 공연장 시설인 문화동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센터는 설계과정에서 친환경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 건물부분 에너지 및 탄소 절감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고 에너지의 7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남구 "종자돈 마련 기회, 지금 신청하세요"

광주 남구는 5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성원과 청년 생계수급자,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금융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I·II'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I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위한 통장이다.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 및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II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 금액만큼 지원받는다.

### 북구, 지활분야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 북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지활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국제 과제와 연계한 지자체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근로빈곤층에게 필요한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우수한 자활기업을 육성해 맞춤형 자활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 조건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다.

### 광산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광주 광산구는 28일까지 시민 누구나 마을 안에서 행복을 채우고 동행하는 '광산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주민·단체를 모집한다.

'오순도순 마을살이와 행복동행'을 기치로 내건 광산구의 이번 공모에는, △새내기공동체 △아파트공동체 △마을공동체 분야로 나눠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내는 광산구 주민자치과(960-8526)와 공익활동지원센터(960-7896)에서 한다.

임형택 기자

## 이용섭 시장 "신종 코로나 대응 대중교통 방역 철저"

### 남광주역 찾아 방역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 당부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오후 동구 도시철도 남광주역을 방문해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과 대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 한 뒤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도시철도 남광주역 대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예방활동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윤진보 광주시 철도공사 시장과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지하철역사와 차량 내부에 대한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현재 월1회 실시하는 전동차 방역소독을 주1회로 늘리고 손잡이, 수직봉 등 승객이 주로 닿는 곳에 수시로 분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각 역에서는 고객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에스컬레이터 핸드 레일과 엘리베이터 버튼, 일회용

승차권을 살균 소독하고 역사마다 손세정제를 비치했다.

이 시장은 대합실과 게이트, 편의시설 방역소독 작업에 참여한 후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손씻기 방법 등을 안내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현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매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치의 빈틈없이 면밀하게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역 위기관리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전남도, 재난위기경보 '심각' 수준에 준해 총력 대응

### 역학조사반 23명으로 확대, 마스크 구입비 긴급 배정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18번 확진자가 광주에서 발생해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지만 '심각' 수준에 준해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2개 시·군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이동 경

로와 접촉자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질병관리본부와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다.

특히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추정감염원,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반을 기존 3명에서 3개팀 23명(의사 4명, 역학조사관 교육이

수자 3명 포함)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도내 숙박시설 중국인 투숙객 조사와 무안국제공항 입국자 자체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운영실태 점검 △예방·홍보 △예방 방역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 3억9600만원을 긴급 배정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3만3000명에 대한 마스크 보급사업비 66억원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감염병 환자 발생에 따른 입원병상 단계별 동원계획에 따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의 가동 준비도 마쳤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확산시 도내 음압병상·격리병상 운용계획 △전부서 협업과 문제점 파악 등 확산을 전제로 한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성은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010-6666-9800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현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비님께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빈부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회연락처 1577-1000